

Ewha-thon 기획서

팀 명	EarlyUs : 얼리어스 - 우리의 세상을 선도하자
프로젝트 소개	<p>도움배움 : 나만의 이화나래 찾아보기</p> <p>-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위한 이화나래벳 매칭 추천 서비스 -</p> <p>‘Where change begins’ 라는 이화 슬로건처럼, 우리의 세상을 선도하자는 비전을 공유하는 팀 ‘EarlyUS’ 중 ‘US’에는 성별·장애·인종에 구애받지 않는 모두를 위한 세상을 이끈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이화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학문을 쌓을 수 있기에,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진정한 학문의 장을 구축하고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즉, 이화나래벳 자동화 매칭과 레이블링 콘텐츠를 결합한 소셜임팩트 SW 프로젝트이다.</p>
문제 상황 및 솔루션	<p>1. 홍보 부족</p> <p>① 홍보 방식의 한계 : 현재 장애학생센터에서는 이화나래벳 모집 홍보를 위해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교내 홍보 포스터 부착 방식을 사용한다.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화나래벳 모집 공고를 확인한 비율은 전체 학생 수에 비해 약 11.82%에 그친다.</p> <p>② 활동 혜택에 대한 인식 부족 : 동기부여 요소로써 여러 혜택이 제공되지만, 대부분 활동 혜택을 알지 못한다. 근로장학금, 봉사학점 등 강력한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미흡한 전달은 학생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p> <p>▶ 솔루션 : ‘이화나래’ 레이블링 콘텐츠 활용 - 바이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통해 이화나래벳을 알린다. 학생들이 자신의 ‘이화나래’ 레이블링 유형을 공유하는 SNS 홍보를 유도한다. 최종 결과 창에 이화나래벳 참여 의사 수집 및 참여 가능 시 추천 알림 동의 정보 확인 후 매칭 가능성을 확인, 신청 페이지까지 이어지게 설정함으로써 참여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잠재적 신청자까지 확보한다.</p> <p>2. 낮은 접근성</p> <p>① 활동 가능 시간 파악의 어려움 : 이화여대 홈페이지 로그인-유레카 시스템 접속-학생서비스-장애학생지원-이화나래벳 신청 접속-장애학생이 신청한 과목 리스트에서 장애학생의 과목 및 장애유형을 확인해야 할 만큼 복잡하다. 이후에도 비장애학생은 장애학생이 도움을 요청한 과목 리스트에서 공강 시간, 주/부/복수/연계전공 정보, 이동 시간 등 모든 정보를 일일이 고려하며 교차 확인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p> <p>② 제공 가능한 도움 유형 안내 부족 : 비장애학생은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 도움이 필요한 유형을 일일이 열람하며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도움 조건과 일치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화나래벳을 신청할 의사가 있음에도,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도움 유형 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난관에 봉착하기에 최종 신청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저해한다.</p> <p>▶ 솔루션 : 활동 가능 시간 및 도움 유형 자동 분류 - 이화나래벳 신청 링크는 레이블링 테스트 결과에서 버튼 클릭 후 바로 연결된다. 자신의 전공 및 시간표를 드래그로 등록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활동 가능 시간과 일치하는 장애학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이화나래’ 결과를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이 적합한 장애학생을 확인한 후, 신청 링크 혹은 대기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자동 필터링을 통해 복잡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이탈률을 낮추고 신청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p> <p>3. 원활하지 않은 도우미 매칭 과정</p> <p>① 수기 방식의 낮은 매칭률 : 현재 이화나래벳 매칭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장애유형, 과목명, 시간표 등의 각 항목을 ‘사람’이 직접 분류하여 신청자 중 일치하는 학생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기 방식으로 2차 모집까지 약 60%에 그치는 매칭률을 보인다. 수강 정정 기간으로 인해 변동사항이 발생하면</p>

	<p>최종적으로 100%의 매칭률을 달성하기까지 보통 한 달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동한 장애학생은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p> <p>▶ 솔루션 : AI 기반 이화나래벳 매칭 확률 예측 - 이화나래벳 매칭률을 높이려면 매칭 확률을 예측하여 매칭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따라서 과거에 장애 학생과 이화나래벳이 매칭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이용하여 장애학생이 매칭될 확률을 예측한다. 이후 매칭 확률이 낮은 장애학생의 경우 ‘이화나래’ 레이블링 콘텐츠에 노출함으로써 이화나래벳과 매칭 확률을 높인다. 즉,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매칭되지 않은 장애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가시성을 높이고, 클릭률을 높이는 전략을 적용한 것이다.</p>
가치 제안 및 솔루션의 차별성	<p>[가치 제안]</p> <p>Gain 형성 ① 활동 가능 여부 파악을 통해 이화나래벳 신청을 촉진시킨다. ②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 바이럴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③ 매칭 가능성이 낮은 장애학생 정보를 팝업을 통해 적극 인지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❶ 무기한 추가모집으로 이어지는 공수를 감소하고 ❷ 홍보가 전파된 도달점을 확장하며 ❸ 매칭률 향상 및 완수를 기대한다.</p> <p>Pain 완화 ① 모집 불충분으로 매 학기마다 추가모집 과정을 감수하고 있었지만, ❶ 타겟 유저의 최종 액션이 모집 링크로 이동하거나, 공유 기능으로 넘어가는 CTA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탈까지 방지하며 신청자 수를 증대시킨다.</p> <p>▶ 궁극적으로, 타겟 유저는 엔터테인먼트적 즐거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할 수 있게 된다.</p> <p>[솔루션의 차별성]</p> <p>① 서비스 확장성 :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도우미, 북한이탈주민 신입생 적응도우미 등 매칭 방식으로 모집하는 교내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다. 모든 학교가 겪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자문 또한 받을 수 있었다.</p> <p>② 엔터테인먼트 : 전파력이 뛰어난 레이블링 콘텐츠 특성상, 기하급수적인 파급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유저 역시 사용자 맞춤형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p> <p>③ 소셜 임팩트 : 여타 서비스의 지표로 여겨지는 단순 사용자 수보다, 서비스의 가치와 영향력을 고려하여 모두의 인간다운 삶 영위라는 사회적·이화적 가치를 전한다.</p>

